

프랑스혁명과 몰라토의 정치적 권리*

- 삼부회 소집에서 1790년 3월 8일 법령까지 -

양 회 영

- | | |
|--------------------|---------------------------|
| I. 삼부회의 소집과 식민지 문제 | III. 제헌의회와 자유 유색인의 정치적 권리 |
| II. 파리의 몰라토들 | IV. 맺음말 |

I. 삼부회의 소집과 식민지 문제

1791년 9월 28일, 해산을 앞둔 제헌의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프랑스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 피부색에 상관없이 자유로우며 헌법이 확립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 주 전인 9월 3일 제헌의회가 채택한 헌법에는 다음의 단서가 담겨 있었다.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의 프랑스 식민지와 소유지들은 비록 프랑스의 일부이기는 하나 이 헌법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혁명적 이상을 인류 보편의 것으로 선포했던 혁명가들은 식민지 문제 앞에서 그 이상이 갖는 뚜렷한 현실적 경계를 인정했던 것이다.

반면 그보다 앞선 1791년 8월, 프랑스의 가장 번영하던 식민지 생도맹그(Saint-Domingue, 지금의 아이티)에서는 스스로 해방을 쟁취하려는 노예들의 대규모 반란이 시작되었다. 노예들은 생도맹그 북부 주 27개 소규모 중 23개에서 봉기하여 2주 만에 200여 개의 사탕수수 농장과 1200개의 커피 농장을 파괴했다. 게다가 노예반란과 거의 동시에 식민지의 다른 집단이 생도맹그 서부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몰라토(mulâtres) 등의 혼혈인(sang-mêlé)과 자유로운 흑인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자유 유색인(gens de couleur libres 또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 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학술진흥 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9-327-A00104).

는 affranchis)이었다. 노예반란은 식민지 백인들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잠재해 있던 공포가 갑작스럽게 현실화한 것이었다. 반면 자유 유색인의 반란은 그들의 권리를 둘러싸고 혁명 초부터 지속되어 온 폭력적 갈등이 임계점에 이르러 일시에 분출한 것이었다. 즉 자유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1791년 5월 15일 제헌의회 법령이 식민지 백인들에게 거부당하자 자유 유색인의 반란이 폭발했던 것이다.

이 두 반란이 이후 생도맹그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었다. 그러나 혁명 초인 1789년 6월 생도맹그 대표 17인이 초대도 받지 않고 삼부회에 등장했을 때 이 대표들에게 노예와 자유 유색인 문제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식민지 농장주 대표였던 이들의 목적은 식민지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식민지 자치권의 강화란 한편으로는 ‘내각의 전제’를 종식하고 식민지인들이 식민지 내부의 구조와 행정에 관한 입법권을 획득하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지가 본국과만 교역할 수 있게 한 ‘독점법’을 폐지하고, 식민지 항구를 외국에도 개방하여 곡물과 노예를 무제한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삼부회의 “임시” 참석권은 얻었지만 투표권은 갖지 못했던 생도맹그 대표들은 6월 20일 테니스 코트의 선서에 참여함으로써 국민회의의 공감을 얻었다.

그러나 뒤이어 벌어진 대표 수에 관한 논쟁에서 의회 참석권은 식민지 대표들에게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것임이 드러났다. 6월 27일 제헌의회에서 랑쥐네(J.-D. Lanjuinais)는 노예제를 비난한 후 백인 귀족으로 이루어진 농장주 대표들이 대부분 노예로 이루어진 식민지 주민을 대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따라서 식민지 대표 수는 오직 농장주 수에 비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월 3일 논쟁이 재개되었을 때 미라보는 식민지 대표가 진정으로 주민 수에 비례한 대표가 되기를 원한다면 노예를 해방하고 자유 유색인에게 권리를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은 한 식민지 대표는 그가 보기에 4명이면 충분했다. 결국 대표 수는 6명으로 조정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애초에 식민지 대표의 의회 참석을 반대했던 또 다른 식민지 농장주들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었다. 그들은 식민지 문제를 일단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면 식민지의 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갖는 의회에서 노예제와 인종차별체제의 문제가 의사일정에 오르게 되리라고 우려했다. 8월 4일 밤 제헌의회에서 ‘흑인의 벗’ 협회 회원 라로쉬푸코가 노예제와 노예무역 문제를 다룰 것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반

면 자유 유색인들은 스스로 조직화하여 곧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의 문제를 제한의회에 직접 제기할 것이었다.

18세기 중엽 이래 자유 유색인 수의 급증은 생도맹그의 긴장 요인 중 하나였다. 1789년 생도맹그 지사 바르베마르부아(Barbé-Marbois)에 따르면 생도맹그에는 노예 509,642명, 백인 35,440명, 자유 유색인 26,666명이 있었다.¹⁾ 1770년 자유 유색인의 수는 6,000명에 불과했다. 법이 정한 자유 유색인이란 주인이 해방시킨 노예, 자유로운 백인 어머니와 비백인 아버지(노예이든 자유인이든) 사이에 난 자녀, 자유로운 비백인 어머니에게 태어난 모든 자녀, 즉 자유롭지만 아프리카 혈통을 지닌 모든 사람을 의미했다. 수의 급증과 함께 백인들의 경제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자유 유색인의 경제적 성장이었다. 생도맹그의 가장 중요한 산물인 설탕은 백인의 거의 독점적인 영역이었으므로 자유 유색인은 인디고와 커피 재배를 통해 식민지 경제에서 발판을 마련했고 서부의 미개척 산악지대와 사실상 변경이었던 남부에서 농장을 개척했다. 일부는 백인 부친이 사망한 후 상속자가 되어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에 진출하기도 했다. 1789년 생도맹그 플랜테이션의 1/3, 노예의 1/4, 전체 부동산의 1/4이 자유 유색인의 소유였다. 자유 유색인은 상업과 수공업에서 하층 백인(*petits blancs*)과 경쟁했고, 노예를 보유한 부유한 농장주로서 하층 백인을 계약 노동자로 고용하기도 했다.²⁾

백인들은 밝은 피부색과 자유로운 지위를 지닌 자유 유색인을 인종적 계층 모니에 대한 위협이자 노예제의 존속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했다. 백인들은 자유 유색인의 사회·경제적 침투에 맞서 억압적인 법규와 조치로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고자 했다. 특히 7년 전쟁이 끝나고 하층 백인의 생도맹그 이주가 급증한 1763년 이후 자유 유색인의 사회적 진출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증가했다. 그에 따라 자유 유색인은 공직을 맡거나 법률, 의학, 약학, 또는 금세공 같은 특권적 직종에 진출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15-55세의 모

1) J.-Ph. Garran de Coulon, Rapport sur les troubles de Saint-Domingue, fait au nom de la commission des colonies, des comités de salut public, de législation et de marine, réunis, par J. Ph. Garran, député par le département du Loiret. Paris, an V-an VIII[1796-9], I, pp. 15-18. FRRC 11.2/98. 마르티니크 농장주 Moreau de Saint-Méry의 추산에 따르면 생도맹그의 노예는 452,000-462,000명, 백인은 40,000명, 자유 유색인은 27,500명이었다.

2) C. E. Fick, *The Making of Haiti, The Saint Domingue from below*(U. of Tennessee Press, 1990), p. 19.

든 자유 유색인은 백인 장교의 지휘를 받는 민병대에 복무해야 했고, 오직 자유 유색인으로만 구성되는 헌병대에 들어가 달아난 노예를 추적해야 했다. 게다가 수많은 모욕적인 금지 목록이 자유 유색인에게 부과되었다. 예를 들어 밤 9시 이후 회합할 수 없고, 전 주인의 이름을 이름으로 쓰거나 백인 아버지의 이름을 쓸 수 없고, 백인과 같은 테이블에 앉을 수 없고, 마차를 탈 수 없고, 프랑스에 갈 수 없고(1770년대), 교회에서는 별도의 자리에 앉아야 하고, 자기 방어나 다른 이유로 백인을 때리면 오른손을 절단해야 했다.³⁾ 이와 같은 자유 유색인의 처지는 1777년 국왕이 마르티니크 총독과 지사에게 보낸 명령서에서 명료하게 요약된다. “유색인은 자유이거나 노예이다. 그러나 그 기원으로부터 아무리 멀어지더라도 그들은 영원히 노예의 흔적을 갖는다.”⁴⁾

삼부회 소집이 예고되었을 때 식민지는 대표 파견권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식민지 농장주들은 이에 개의치 않고 불법적으로 회합하여 진정서를 작성하고 대표를 선출했다. 이때 자유 유색인은 논의의 여지없이 배제되었다. 플랜테이션 소유자만이 회합에 참석할 수 있었는데, 플랜테이션 소유자란 “도시와 읍에 가옥을 소유하고 노예 25명이 거주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모든 사람”이었다. 그러나 자유 유색인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플랜테이션 소유자”에 포함되지 않았다.⁵⁾ 그런 상황에서 생도맹그 남부의 자유 유색인들은 자신들만의 대표권을 얻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그들은 지사와 총독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여 대표권에 관한 자신들의 진정서를 국왕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상 그들은 이미 1783년 완전한 시민권을 얻기 위해 공동행동에 나선 바 있었고, 그들의 대표 자격으로 1784년 프랑스로 건너왔던 줄리앵 레몽은 이제 삼부회 소집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맞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었다.

이 글에서는 삼부회 소집에서부터 식민지 문제에 관한 첫 번째 포괄적 법령인 1790년 3월 8일 법령과 3월 28일 명령서가 통과될 때까지 정치적 권리

3) 자유 유색인에 대한 탄압적인 조치들에 대해서는 A l'Assemblée Nationale. Supplique et pétition des citoyens de couleur des isles & colonies françaises, sur la motion faite le 27 Novembre, par M. de Curt, député de la Guadeloupe, au nom des colonies réunies..., du 2 Décembre 1789, AN, AD XVIIIc 118, n° 10.

4) C. E. Fick, *The Making of Haiti*, p. 20.

5) “Le plan proposé par la colonie pour la formation des assemblées coloniales”, B. Maurel, *Cahiers de doléances de la colonie de Saint-Domingue pour les États généraux de 1789*(Paris: Leroux, 1789), p. 287, FRRC 11.2/31.

를 위한 자유 유색인의 투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투쟁의 성격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두 가지 평가를 대비해볼 수 있다. 하나는 이 투쟁이 식민지 사회의 인종적 토대에 대한 도전이었고 결국 노예제 폐지로 귀결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 하나는 자유 유색인은 피부색에 따른 차별을 폐지함으로써 식민지 사회질서의 원리를 수정하려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질서의 우월한 집단, 즉 백인으로 인정받고자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혁명기 자유 유색인의 주장과 행동은 두 번째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한다. 그러나 그렇다해도 그 점이 결과적 측면에서 첫 번째 판단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또 자유 유색인들의 주장과 행동이 단일하고 일관되었던 것은 아니며 혁명은 백인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유 유색인의 열망이 표출될 수 있는 무대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열망에 균열을 일으키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반면 혁명 프랑스는 그 열망과 변화에 침묵과 회피로 대응했고, 그러한 대응은 인권선언에 정의된 혁명의 원리와 혁명의 현실적 경계가 같등하면서 공존하는 방식을 드러냈다. 아래에서는 바로 그러한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II. 파리의 몰라토들

1. 쥘리앵 레몽과 ‘아메리카 식민지인’ 협회

생도맹그 농장주 대표들은 1789년 7월 초 공식적인 의석을 획득한 반면 자유 유색인의 대표권 요청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 자유 유색인의 탄원서를 수령한 해군·식민지 대신 라뤼제른은 8월 1일, 그들의 요구를 국민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이미 국민의회에 참석해 있는 식민지 대표들의 몫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자유 유색인들로서는 자신들의 요구를 백인 농장주 대표에게 맡길 수 없었다. 그에 따라 자유 유색인들은 본격적으로 진정서를 작성하고 별도의 대표를 요구하는 활동에 나섰다. 처음에 이러한 활동은 한편으로는 생도맹그 남부 자유 유색인 대표 쥘리앵 레몽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는 파리에 거주하던 자유 유색인들에 의해 따로 진행되었다.

1784년 프랑스로 건너온 쥘리앵 레몽은 부인의 땅이 있던 앙구무아(Angoumois)에 머물면서 1786년에서 1789년 4월까지 해군대신 카스트리(Castrie)와 라뤼제른에게 4차례 진정서를 제출했다.⁶⁾ 쥘리앵 레몽은 백인 아버지와 자유 몰

6)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에 대해서는 Observations adressées à l'Assemblée Nationale,

라토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사분혼혈인(quarteron)으로서 생도맹그 남부 아캥(Aquin)에 인디고와 면화 농장 등 3개의 번성하는 농장과 100여 명의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가 대신들에게 제출한 진정서는 성공한 자유 유색인이었던 그가 식민지 인종차별 체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준다. 그는 자유 유색인의 근면성, 노예제에 대한 지지, 식민지 방어에서의 중요성을 입증하고자 했다. 그에 따르면 자유 유색인은 노예를 통제할 식민지 백인의 자연적 동맹자였다. 그런데도 오직 이 자유 유색인만이 식민지 사회의 사회적 유동성에서 배제되었다. 식민지 백인은 성공적인 플랜테이션 경영을 통해 본국에서 작위와 위신을 얻을 수 있었고 노예조차 돈을 모아 자유를 살 꿈을 꾸

par un député des colons amériques, p. 7, AN, AD XVIIIc/118, n° 1. 레몽은 혁명 전부터 생도맹그 남부 자유 유색인 내에서 대표로 인정받았다. 1782년 생도맹그 농장주들이 국왕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전함을 바치겠다고 제안했을 때 아캥의 자유 유색인들 역시 참여하겠다고 나섰다. 이때 자유 유색인들의 모금 임무를 맡은 인물이 레몽이었다. 자유 유색인들은 이 모금을 통해 완전한 시민권을 요구할 만한 재정적·도덕적 자격이 있음을 과시하고자 했고 레몽은 한 달 만에 9,450리브르를 모금했다. 동시에 자유 유색인들은 레몽의 집에서 회합을 갖고 레몽에게 인종적 편견에 반대하는 진정서와 항의서를 관리들에게 제출할 임무를 맡겼다. 이것이 생도맹그 자유 유색인들의 최초의 공동 행동이었다. 레몽은 1783년 총독 벨콩브(Bellecombe)와 지사 봉그라(Bongras)에게 진정서를 제출해 “너무 오래, 너무 멀리 침투한 것으로 보이는 잘못을 제한하고 종결시킬 것”을 요청했다. 총독 벨콩브는 레몽에게 본국으로 가 국왕과 대신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1784년 봄 레몽은 아캥 자유 유색인들의 진정서를 국왕에게 바칠 임무를 띠고 프랑스로 건너 왔다.

그러나 레몽이 프랑스로 온 것은 재혼한 부인의 재산 문제 때문이기도 했다. 몰라토였던 그의 부인은 푸아투(Poitou)와 오니(Aunis) 경계에 있는 모제(Mauzé)에 땅을 가지고 있었다. 레몽의 출발에는 사적인 용건과 자유 유색인들의 공적인 문제가 결합되어 있었던 셈이다. 그에게 진정서 제출의 임무를 맡긴 이들은 Delaunay 형제, Boisrond, Leclerc, Lalanne, Labadie, Lausengues, Maubois, Casamajor, 과부 Montbrun, 레몽의 형제들인 Georges와 Pierre였다. 레몽은 출발에 앞서 서부와 남부를 순회하며 여러 자유 유색인의 동의를 얻었다. les Cayes에서는 Boury, Hervieux, Hérard, Marlot, Ry, Port-au-Prince에서는 Compaing, Harang, Vimère, Cameau, Chanlatte, Saint Marc에서는 Pinchinat와 Abadie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정식 위임장을 받지는 못했는데, 그것은 백인들로부터 불리한 의심을 받거나 불법 집회로 비난받을까 염려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단순히 레몽이 소홀히 했을 수도 있다. 백인 농장주들은 이후 위임장의 부재를 들어 레몽이 음모꾼들의 수장이라거나 그 영향력이 그의 소교구와 가족을 넘어서지 못하는 고립된 몽상가라고 비난했다. Debien, “Gens de Couleur libre et colons de Saint-Domingue devant la Constituante(1789~mars 1790)”, *Revue d'histoire de l'Amérique française*, Vol. 4, No. 2(sep. 1950), p. 218.

었다. 오직 자유 유색인만이 타고난 사회적 범주를 벗어날 수 없었다.⁷⁾

레몽은 차별적 법을 폐지하기보다 자격을 갖춘 유색인을 백인과 동일한 시민적 지위로 상승시키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차별적 법을 약화시킬 것을 주장했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란 부유하고 피부색이 밝고 좋은 교육을 받았고 적자로 태어났고 친척 중에 노예가 없는 자유 유색인이었다. 그런 자유 유색인들의 “백인화”⁸⁾는 그들의 근면함과 식민지에 대한 충성에 보답함으로써 그들에게 새로운 전망을 열어주고 그들의 근면함과 충성심을 강화할 것이었다.

자유 유색인 문제에 대한 이러한 시각과 해법은 레몽이 식민지 백인 농장주들의 압력단체인 마시악 클럽을 방문했을 때에도 드러났다. 레몽은 식민지 대신 라뤼제른의 권고에 따라 8월 26일 마시악 클럽을 방문했다.⁹⁾ 레몽은 클럽의 농장주들 앞에서 자유 유색인의 권리문제를 제기했다. 이때 레몽은 자유 유색인 전체의 공민권을 요구하지 않고 두 세대에 걸쳐 적자이며 자유로운 사분혼혈인의 공민권만을 요구했다.¹⁰⁾ 동시에 그는 몰라토의 대의와 자유 흑인의 대의를 혼동하지 않으려 주의했다. 그리고 그는 백인 남성과 흑인 여성 사이에 태어나는 아이는 “시민(citoyen)”, 흑인 남성과 흑인 여성 사이에 (자유 흑인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아이는 “자유 유색인(libre)”으로 지칭할 것을 제안했다. 따라서 그의 주 관심사는 오직 몰라토였고 피부색의 차이에 따른 위계를 인정했다.¹¹⁾ 레몽은 이러한 온건한 요구를 통해 백인 농장주들

7) J. Garrigus, “The Free colored Elite of Saint-Domingue: The Case of Julien Raimond, 1744-1801”, published as a PDF file on May7, 2003, <http://users.ju.edu/jgarrig>, p. 24

8) *Ibid.*, p. 25

9) 레몽이 마시악 클럽을 방문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J. Raimond, *Véritable origine des troubles de S.-Domingue et des différentes causes qui les ont produits*, Paris, 1792, pp. 16-17, FRRC 11.2/74; 레몽은 대신들에게 제출한 진정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1789년 7월, 자유 유색인을 위해 국민의회 대표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해줄 유력한 지인을 물색했다. 레몽은 앙구무아 인근에 영지를 가진 자르낙 백작, 샤를 드 로양샤보(Charles de Rohan-Chabot)에게 자유 유색인의 보호자이자 대변인이 되어줄 것을 요청했고, 8월에는 엑스(Aix) 인근 펠리잔(Pelissanne)에 정착한 사분혼혈인 발디(Baldy)에게 몰라토 대표직을 제안했다. 이러한 노력 역시 무위로 돌아간 후 레몽은 파리로 올라왔다.

10) Debien, “Gens de Couleur”, p. 229.

11) Y. Debbasch, *Couleur et liberté. Le jeu du critère ethnique dans un ordre juridique esclavagiste*(Paris: Librairie Dalloz, 1967), p. 151.

과 합의점을 찾게 되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레몽의 기대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것이었다. 마시악 클럽은 레몽이 방문한 다음 날인 8월 27일, 프랑스에 있는 유색인들이 생도맹그로 돌아가지 못하게 해줄 것을 항구 도시들에 요청했다. 마시악 클럽은 8월 20일에 이미 식민지로 돌아가는 농장주들에게 하인을 프랑스에 두고 가도록 요청한 바 있었다. 백인 농장주들은 자유 유색인과 노예들이 프랑스의 혁명적 분위기를 식민지에 전염시킬까 우려했다. 마시악 클럽에 앞서 식민지 대표들은 8월 12일 생도맹그에 편지를 보내 수상한 사람들을 체포하고 자유라는 단어가 들어간 글들은 모조리 압수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그들은 자유 유색인을 단속하라고 강조했다. 프랑스에서는 식민지로 출발하는 자유 유색인의 승선을 막을 수 없으므로 식민지에 도착하는 자유 유색인을 식민지인들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자유 유색인을 혁명세력으로 단정한 이 편지는 이후 생도맹그에서 자유 유색인에 대한 일련의 폭력사태를 초래할 것이었다.¹²⁾

한편 레몽의 마시악 클럽 방문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이 분명해지던 바로 그 시기에 파리에 거주하는 자유 유색인들이 회합을 갖기 시작했다. 8월 29일 30명의 자유 유색인이 파리의 변호사 드졸리(Etienne-Louis Hector de Joly)의 사무실에서 ‘프랑스의 여러 섬과 식민지의 자유 유색인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의 목적은 식민지 진정서 작성에서 배제되었던 자유 유색인의 진정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레몽은 뒤늦게, 즉 이 회의가 진정서 작성을 완료하고 진정서를 제헌의회에 제출하려 하던 10월 중순에 가서야 이들의 존재를 알고 합류했다.¹³⁾

12) 식민지 대표들의 편지 내용과 그것이 초래한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J. Raimond, *Véritable origine*, pp. 6-15.

13) 자유 유색인 회의의 9월 의사록에는 레몽의 서명이 없다. 지롱드파가 몰락한 후인 1793년 9월, 브리소와 친분이 있던 레몽은 보안위원회에 체포되었다가 1795년 5월 석방되었다. 레몽은 수감 중이던 1794년 3월 6일, 1784년 이래 자신의 행적을 밝힌 24쪽 짜리 진술서를 작성했다. 진술서에서 레몽은 아메리카 식민지인 협회와의 만남을 기술했다. “그 며칠 전 나는 파리에 있던 여러 유색인 형제들이 나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벌였고 제헌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변호사인 시민 드졸리의 거처에서 모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함께 청원하기 위해 서둘러 그들에게 합류했고 그때 우리는 동봉한 진정서를 제헌국민의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Compte que Julien Raimond rend au Comité de sûreté générale, de toutes ses actions et écrits depuis l'année 1784 vieux style*, 23 p., 16 ventôse an II-6 mars. F. Gauthier, *L'aristocratie de l'épiderme, Le combat de la Société des citoyens de*

따라서 9월 9일 드졸리와 자유 유색인 회의의 대표 다섯 명이 마시악 클럽을 방문했을 때 레몽은 거기 속해 있지 않았다. 이날 드졸리는 백인 농장주들 앞에서 자유 유색인이 그간의 굴욕과 수동적 상태에서 벗어날 때라고 선언했다. 이제 “자유 유색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각했다. 인권선언은 그에게 그의 가치를 알려주었다.” 자유 유색인은 “자신의 권리를 검토하고 이익을 협의하기 위해 모였고,” 식민지의 옛 법들과 1685년 칙령(Code Noir)이 인정하는 그의 요구를 국민의회에 전달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자유 유색인들이 마시악 클럽을 방문한 것은 자신들의 권리를 선언하고 백인 농장주들에게 도전장을 내밀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드졸리에 따르면 자유 유색인들은 국민의회에 요구를 제출하기에 앞서 “동향인, 형제, 친구”에게 감사의 예를 표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희망을 표현하기를 원했다. 나아가 자유 유색인의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바로 그들 백인 농장주에게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했다.¹⁴⁾ 결국 자유 유색인들은 ‘형제이자 친구’인 백인 농장주들에게 국민의회에 앞서 자유 유색인의 권리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하러 마시악 클럽에 갔던 것이다.

마시악 클럽은 이튿날 답을 보내왔다. 클럽은 몰라토 문제가 국민의회에 제기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클럽은 다양한 인물들로 구성된 국민의회가 혹여 인권선언의 원리에 따라 몰라토의 요구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까 우려했다. 클럽은 준비 중인 생도맹그 식민지 의회로 몰라토 문제를 돌려보내고 그곳에서 이 폭탄의 뇌관을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에 따라 클럽은 “자신들의 지역 밖에서 모인 식민지인들의 단순한 회합은 법적 성격을 가질 수 없다”고 답했다. 즉 파리에서 모인 자유 유색인의 회의는 대표성이 없으므로 그 활동과 요구를 존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 답장에 분개한 자유 유색인들은 9월 12일 마시악 클럽의 공식 명칭인 ‘프랑스 식민지인’ 협회에 맞서 ‘아메리카 식민지인(colons américains)’ 협회라는 명칭을 채택하고 국민의회 대표권을 얻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기로 결의했다.¹⁵⁾ 이어 ‘아메리카 식민지인’ 협회는 9월 22일 회원들의 열정과 헌신의 증거를 국민에게 보이기 위해 회원들의 전 소득의 4분의 1, 즉 600만 리브르

couleur 1789/1791(Paris: CNRS édition, 2007), p. 28에서 재인용.

14) Extrait du procès-verbal de l'assemblée des gens de couleur, 12 septembre 1789, pp. 7-8, AN, AD XVIIIc 118, n° 2.

15) *Ibid.*, pp. 14-15

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의회에 바치고 재산의 50분의 1을 공탁하기로 결정했다.¹⁶⁾

자유 유색인들이 채택한 ‘아메리카 식민지인’이란 명칭은 백인 농장주들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프랑스 식민지인’에 대비되는 것이었다. 몰라토 지도자들의 어휘에서 ‘아메리카 식민지인’이란 유럽과 결합된 백인이나 아프리카인인 흑인을 제외하고, 본질적으로 두 인종에 속하는 사람들만을 의미했다.¹⁷⁾ 이들의 정체성은 익명의 몰라토가 1789년 파리에서 발간한 글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흑인(Noirs)의 피부색은 아프리카를 가리킨다. 우리의 법에서는 오직 이 피부색만이 그들의 주인에 대한 채무에 종속된다... 혼혈인의 피부색은 아메리카를 가리킨다. 이 대륙은 프랑스 군주정의 헌법과 마찬가지로 자기 땅에서 태어난 시민을 노예로 여기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를 흑인노예(Nègres)와 혼동하는 것은 더욱 부당하며 이 부당함으로부터 우리에게 대한 이 흑인노예들의 극단적 불순종이 나타난다.¹⁸⁾

1789년 9월 초까지 자유 유색인들은 완전한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유럽적 혈통을 강조했다. 그들은 유럽적 혈통과 더불어 백인과 다를 바 없는 재산 자격을 내세워 우선 백인 농장주들을 설득하고자 했다. 자유 유색인 회의의 자격을 부인하는 마시악 클럽의 답장을 받은 후 분개하여 백인과 구분되는 정체성을 내세울 때에도 역시 그들은 흑인노예와 스스로를 명백히 구분하고 자신들이 노예를 통제할 수 있는 백인 농장주의 동맹자임을 입증하고자 애썼다. 그러나 이제 자유 유색인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호소하고 정의를 요구할 곳은 제헌의회뿐임이 분명해졌다.

16) Extrait du procès-verbal de l'assemblée des colons américains, du 22 septembre 1789, p. 1, AN, AD XVIIIc 118, n° 3.

17) 쥘리앵 레몽의 친구 Boisrond은 스스로 ‘아메리카인’으로 자칭하면서 아메리카인을 “섬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이루어진 수적으로 많은 계급”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Cavillon 교구의 자유 몰라토들은 자신들이 “백인 농장주에 속하지도, 식민지로 이식된 외국인들에게 종속되지도 않을 것”이며 “그것은 섬사람들의 권리를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Y. Debbasch, *Couleur et liberté*, p. 152.

18) Précis des gémissements des sang-Mêlés dans les colonies françaises. par J. M. C. Américain, sang-mêlé. Paris, 1789, FRRC 11.2/50.

2. ‘아메리카 식민지인’ 협회의 진정서

마시악 클럽이 지원을 거부한 후 ‘아메리카 식민지인’ 협회는 진정서 작성에 매진했다. 협회는 9월 22일 진정서를 완성하여 다음 달 22일 제헌의회에 제출했다. 레몽은 진정서 서명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진정서를 제출할 5명의 대표 중 하나로 지명되었다.

진정서가 우선적으로 요구한 것은 백인과 자유 유색인 사이의 차별 철폐였다. 식민지 주민은 오직 두 계급(classes) 즉 자유인 계급과 예속된 채 태어나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계급으로 구분되어야 한다(1조).¹⁹⁾ 자유인 계급은 백인뿐 아니라 모든 유색인 크레올(créoles de couleur), 즉 자유로운 흑인, 몰라토, 사분혼혈인, 다른 사람들을 포함한다(2조). 그리고 이 유색인 크레올은 다른 식민지인과 같은 권리, 지위, 자치권, 특권을 누려야 한다(3조). 진정서는 이 동일한 권리의 근거로 제헌의회가 제정한 인권선언과 1685년 칙령의 57, 59조²⁰⁾를 제시한다(4조).

이어 진정서는 백인과 자유 유색인 사이의 차별 철폐를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열거한다. 예를 들어 자유 유색인에게 판사, 변호사, 공증인, 검사, 서기, 집달리를 포함한 모든 직업이 개방되어야 하고, 백인과 유색인은 새로 수립되는 식민지 행정부와 시 정부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식민지에 공립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세워 백인과 자유 유색인 자녀가 함께 입학해야 한다. 특히 자유 유색인 사이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흑인, 몰라토, 사분혼혈인은 의용군 부대에 뒤섞여 편제되어야 하고 이들의 세 부대를 통합하여 유색인 장교가 지휘해야 한다.²¹⁾

이상의 논의(1-6조)에서는 식민지 주민을 단순히 자유인과 노예로 구분함

19) Cahier, contenant les plaintes, doléances & réclamations des citoyens-libres & propriétaires de couleur, des isles & colonies françaises.[Paris, 1789], 15 pp. AN, AD XVIIIc 118, n° 5.

20) 이른바 ‘Code Noir’로 불리는 1685년 칙령의 제57조는 해방된 노예는 외국에서 태어났다 해도 귀화 증서 없이 “우리 왕국, 우리가 순종하는 나라”에서 태어난 신민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선언했다. 제59조는 자유롭게 태어난 사람이 누리는 것과 같은 권리, 특권, 면제권을 해방노예에게 부여한다고 선언했다.

21) 1765년 1월 15일 총독령은 16세 이상 생도맹그의 모든 자유 주민을 민병대에 가입하게 했다. 이 칙령은 백인과 유색인의 부대를 함께 창설하면서 유색인의 부대는 사분혼혈인, 몰라토, 흑인 부대로 나누었다. 또 1768년 4월 1일 칙령은 자유 유색인 민병대도 백인 장교가 지휘하게 했다.

으로써 백인과 자유 유색인 사이의, 그리고 자유 유색인 내의 구분과 차별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반면 노예제를 기정사실로 인정한다. 그런가하면 2조에서는 유색인 크레올 안에 자유 흑인을 포함시키면서도 6조에서는 유색인 크레올과 자유 흑인을 별도로 표기하여 유색인 크레올의 경계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진정서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 백인 남성과 여성 노예의 동거, 그 자녀의 문제를 다룬다(7-20조). 진정서는 백인 시민이든, 유색인 시민이든 여성 노예(자신의 노예이든, 다른 이의 노예이든)와 동거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함께 사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이를 어긴 경우 그 여성 노예를 반드시 해방하게 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자유 남성과의 사이에 자녀를 낳은 여성 노예는 ‘그 임신에 의해,’ 그 자녀는 ‘태어나는 순간’ 해방되어 그 몸과 권리의 주인이 되게 할 것을 요청한다(10조). 그리고 자유인 남성은 여성 노예와 그 자녀의 생계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고 자녀에게는 호적상의 지위를 제공해야 한다(11조). 백인 남성과 노예 여성의 동거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자녀의 피부색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아이가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검다면 어머니와 아이는 노예로 남는다(16조). 아이가 몰라토라면 어머니와 함께 해방된다(17조). 이어 진정서는 모든 몰라토와, 흑인노예를 제외한 모든 유색인이 자유로우며 따라서 이후로는 아무도 예속되어 있지 않음을 선언할 것을 요청한다.

다음으로 진정서는 “주인을 따라 프랑스에 도착한 흑인노예는 프랑스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자유롭다고 명령해줄 것(21조)”, 남녀 백인과 흑인의 결혼을 금한 1724년 칙령의 제6조를 철회해줄 것(22조), 모든 문서에 관련 시민이 흑인인지, 몰라토인지, 사분혼혈인인지 기재하는 것을 금지해줄 것(25조), 자유로운 시민은 피부색에 상관없이 프랑스에 와서 체류할 수 있게 해줄 것(26조), 노예 주인은 지사, 총독, 주관 위임관의 허락 없이도 노예를 해방할 수 있게 해줄 것(27조)을 국민의회에 탄원했다. 이어 29조는 “노예 주인들이 질서 유지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노예 주인은 그 노예가 저지른 과격 행위에 대해 피부색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30조는 자유 유색인 시민의 대표를 의회에 받아들여줄 것, 앞으로 백인들이 이들과 함께 공동의 이익을 관리하고 대표를 지명하기 위해 기초 회의, 시 의회, 식민지 의회에서 협력하도록 포고해 줄 것을 국민의회에 요청했다.

이상과 같이 진정서는 노예를 제외한 모든 식민지인이 하나의 계급임을 강

조하고 동일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누리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진정서는 마시악 클럽의 홀대로 다시 한 번 확인된 식민지 백인의 오만함과 전횡에 대한 분노를 신중하게 감추고 29조와 30조에서처럼 자유인 계급의 융합을 내세웠다. 그러나 진정서에 은폐된 감정적 반응은 10월 22일 드졸리가 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낭독한 청원서에서 더 생생하게 표출되었다.

드졸리에 따르면 아메리카 식민지인은 “천시당하고 강등된 사람들, 멸시당하고 굴욕 속에 살아가는 시민들의 계급, 한마디로 압제의 멍에 아래 신음하는 프랑스인”이었다. 드졸리는 몰라토와 사분혼혈인을 “불행한 아메리카 식민지인”으로 지칭하면서 진정서에서와는 달리 해방된 흑인은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식민지 백인은 “야심찬 특권층”이며 이들의 행동원리는 “다른 사람들을 홀로 온전히 지배”하는 것이다. 그러한 원리에 따라 식민지 백인은 자유 유색인의 권리, 즉 회합할 권리, 식민지의 대표를 선출할 권리를 가로챘다. 자유 유색인은 식민지 회의에 소집된 적도, 백인 대표에게 위임장을 준 적도 없었고, 양자의 이해관계는 명백히 대립되는 만큼 백인들이 구성한 대표체는 불합리하고 모순적이었다.²²⁾

이어 드졸리는 자유 유색인이 인권선언에 따라 회합하고 진정서를 작성했음을 상기시켰다. 자유 유색인은 백인과 마찬가지로 자유인이며 프랑스인이고 재산소유자이며 백인들처럼 세금을 납부하고 공동의 의무를 수행한다. 자유 유색인은 백인과 마찬가지로 조국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렸고, 또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 나아가 드졸리는 자유 유색인들은 국가의 빛을 갠기 위해 600만 리브르를 납부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러나 이것은 의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자유 유색인이 원하는 것은 제헌의회의 엄격한 원리에 따라 자연과 사회계약에 토대를 둔, 시효에 의해 소멸하지 않는 권리, 제헌의회가 헌법의 토대로 엄숙히 인정한 권리이다.²³⁾

드졸리가 낭독한 청원서는 한편으로는 식민지 백인에 대한 분노를 솔직히 표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선언과 혁명의 담론을 좀 더 익숙하게 구사했다. 그러나 ‘아메리카 식민지인’ 협회의 진정서와 청원서는 둘 다 노예의 운명이나 노예제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표현하지 않았다. 백인과 동등한 재산소유 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히려 노예제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22) Adresse à l'Assemblée Nationale pour les citoyens libres de couleur des Isles & Colonies françaises, 18 octobre 1789, p. 3, AN, AD XVIIIc 118, n° 4.

23) *Ibid.*, pp. 6-7.

노예와 혼동되는 데 대한 분노를 표현해야 했다. 또한 노예와 구분되는 존재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재산소유자이며 한편으로는 유럽인의 후예임을 암시해야 했다. 따라서 자유 유색인의 경계를 설정하면서 자유 흑인을 때에 따라 경시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이런 태도는 암암리에 흑인을 노예와 동일시하고 그럼으로써 자유로운 재산 소유자라는 자신들의 지위가 피부색의 낙인에 의해 무효화되지 않는 것임을 지적하려는 것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III. 제헌의회와 자유 유색인의 정치적 권리

1. 몰라토의 벗, 쿠르낭과 그레구아르

쥘리앵 레몽은 ‘아메리카 식민지인’ 협회에 합류하기 전인 1789년 8월과 10월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제헌의회에 진정서를 낭독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그는 “고립되어 있었고, 아는 이도, 지원자도 없었다.”²⁴⁾ 그 기간에 자유 유색인의 대의를 지지해준 이는 쿠르낭 신부와 제헌의회 의원 그레구아르뿐이었다. 레몽은 당시 자유 유색인을 위한 청원서를 발표하고 베르사유에 머물고 있던 쿠르낭을 알게 되었고 그를 통해 그레구아르를 만났다.

쿠르낭은 청원서에서 자유 유색인이 자유로운 재산 소유자이며 유럽인의 후예라는 점을 들어 그들의 권리를 옹호했다. “백인과 노예 사이의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백인의 피를 갖는다. 그들은 프랑스인과 아프리카인의 피가 섞여 프랑스인이 되었다. 계몽된 관리라면 종의 결합을 식민지의 번영과 힘을 증대시킬 수단으로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백인들은 ‘혼혈’이라는 명령을 통해 유럽의 특권층만큼이나 위협하고 그만큼도 그럴싸하지 않은 특권층을 열대지방에 수립했다. 유럽의 특권층이 ‘이름’의 특권층이라면 아메리카의 특권층은 ‘피부색’의 특권층이다.”²⁵⁾

이러한 논리에 따라 쿠르낭은 청원서 말미에서 유색인의 지위에 관한 특별 조항이 왕국의 헌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재산을 소

24) F. Gauthier, *L'aristocratie de l'épiderme*, p. 27.

25) Courmand, Antoine de, Requête présentée à nosseigneurs de l'Assemblée Nationale, en faveur des gens de couleur de l'île de Saint-Domingue, pp. 4-5, FRRC 11.2/56.

유한 유색인은 2대에 걸쳐 적자인 경우 백인이 누리는 모든 특권을 누려야 한다. 또한 누구에게도 혼혈에 대해 비난해서는 안 되며 어길 경우 엄격히 처벌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등의 원리를 통해 백인과 유색인 두 계급에게 더 많은 힘을 보태줌으로써 이 먼 식민지에서 프랑스 국민의 위업, 그 제도의 안녕, 식민지의 번영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²⁶⁾ 이 마지막 요구는 백인과 자유 유색인의 결속을 통해 잠재적 위협 세력인 노예를 통제해야 함을 암시한다. 다른 한편 유럽인과 아프리카인의 ‘혼혈’을 통해 식민지에 더 나은 종이 탄생했다는 쿠르낭의 주장은 노예와의 혼혈을 강조함으로써 자유 유색인을 열등한 지위에 묶어두려는 백인 농장주들의 논리를 거꾸로 뒤집은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쿠르낭은 혈통과 혼혈을 강조함으로써 자유 유색인 문제를 몰라토의 문제로 한정시켰고,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토대로 한 평등과 해방의 논리로 확장시키지 못했다.

쿠르낭을 통해 레몽을 알게 된 그레구아르 역시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다. 그레구아르에게도 자유 유색인의 문제는 곧 몰라토의 문제였다. 그레구아르는 레몽을 통해 몰라토 문제에 눈떠 그들의 권리 요구에 앞장서게 되었고 10월부터 제헌의회 위임장 심사위원회의 일원으로 자유 유색인의 대표권을 강력하게 옹호했다.²⁷⁾ 그러나 그는 노예제 폐지론자이기도 했고 두 문제를 함께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몰라토의 권리와 노예제 폐지를 동시에 주장하면서 그는 극히 모순적인 논리에 빠지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종적 경계에 대한 자유 유색인들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그레구아르는 12월 초 자유 유색인의 대표 문제를 본회의에 상정하는 데 실패한 후 소책자를 통해 식민지 문제에 관한 자신의 포괄적인 견해를 발표했다. 이 글에서 그는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논리를 동원해 자유 유색인의 권리를 옹호했다. 그에 따르면 자유 유색인은 근면한 시민으로서 수많은 농장을 일구어 일부는 대지주로 성장했다. 따라서 그들은 식민지의 부를 증대시

26) *Ibid.*, pp. 10-11.

27) 그레구아르는 혁명 전부터 프랑스 동북부 유대인 공동체의 지위에 관심을 가졌고, 삼부회 대표로 선출된 후 유대인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레구아르는 1789년 8월 말~9월 초에 쓴 글(Motion en faveur des juifs)에서 유대인의 권리가 멀리 있는 아프리카인들의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10월 초에 이 글을 출간하면서 첨부한 서문에서는 몰라토의 권리가 동일하게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R. F. Necheles, *The abbé Grégoire 1781-1831, The Odyssey of an Egalitarian* (Greenwood, 1971), p. 60.

켰고, 국가의 번영에 기여했다. 게다가 그들은 매우 용맹하여 “구렁을 기어오르거나 도망 노예를 잡아오는 데 누구보다 능숙하다. 그들은 노예의 반란을 막는 확실한 버팀목이다.”²⁸⁾ 여러 쪽에 걸친 유색인의 처지와 덕성의 묘사, 그리고 노예반란의 방파제로서 몰라토의 역할에 대한 강조는 레몽이 이후에 쓴 글들의 묘사와 유사한 것에 비추어 분명히 레몽의 영향을 보여준다.

이어 그레구아르는 인종적 기원을 내세워 자유 유색인의 권리를 거부하는 백인들에게 마찬가지로 인종적 기원을 내세워 반박한다. 그에 따르면 오늘날 백인이라 자부하는 식민지인의 조상은 내세울 것 없는 해적, 떠돌이, 계약노동자(engagés)이며 많은 수는 원주민이나 혼혈인이다. 동시에 그레구아르는 흑인은 순수한 혈통이고 몰라토는 혼혈이므로 타락한 종이라는 일부 자유 흑인의 주장에 맞서 “종의 교배(croisement des races)는 종을 개량하기 때문에 유색인은 일반적으로 강건한 체격을 갖는다”고 주장한다.²⁹⁾

심지어 그레구아르는 몰라토의 반란이라는 위협적인 카드를 꺼내들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다른 주장인 노예제의 문제로 넘어간다. 식민지 백인들에 대한 그의 조롱 섞인 조언에 따르면 식민지의 인구 구성상 유색인만이 노예 반란과 도망에 맞서 식민지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따라서 노예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노예 앞에서 유색인을 존중하고 돋보이게 하고 유색인과 백인의 결속을 공고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욕을 참을 수 없게 된 몰라토는 본국과 절연하기 위해 노예와 결합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거부에 크게 상심하여 우리의 정의로부터 얻을 수 없는 것을 그들의 힘으로 얻고자 할 것이다. 압제에 대한 저항은 신이 주신 권리이자 국민의회가 인정한 권리이다.” 현재 식민지의 상황에서 노예들이 몰라토를 증오한다해도 몰라토가 자유의 깃발을 치켜든다면 모든 노예가 거기 합류할 것이다.³⁰⁾

이어 그레구아르는 노예 해방의 문제를 압제당하는 국민들(nations)의 해방이라는 문제와 결부시킨다. 자신들의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지 깨달은 국민이라면 이제 그 군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자유를 쟁취하고 수

28) Mémoire en faveur des gens de couleur ou sang-mêlés de St.-Domingue, & des autres Isles française de l'Amérique, adressé à l'Assemblée Nationale. Par M. Grégoire, Curé d'Embermenil, Député de Lorraine, Paris, Belin, 1789, p. 17, FRRC 11.2/57.

29) *Ibid.*, p. 25.

30) *Ibid.*, pp. 31-32.

호하기 위해 싸울 것이다. 따라서 전 세계에서 전제정을 소멸시키고 자유를 부활시킬 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식민지에서 반란이 일어난다면 바로 이와 같은 반란이다. 흑인 노예들은 단 한 사람의 지도자만 있어도 자신들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자각할 것이다. 그때 만일 몰라토가 노예를 폭군들에 맞서 보호할 수 없다면 노예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고 노예는 스스로 자신의 예속의 사슬을 끊을 것이다. 결국 그레구아르에게 노예의 해방은 전제정의 소멸과 국민들의 해방이라는 세계 혁명의 일부이고, 그 과정에서 노예가 반란을 통해 스스로를 해방한다해도 누구도 그것을 비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그레구아르는 상상과 예언의 날개를 접고 현실로 돌아온다. 반란보다 바람직한 것은 점진적인 노예의 해방이며 그 방법 중 하나는 백인과 자유 유색인의 결속이다. 결속된 양자는 노예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 노예를 해방하기에 적절한 때가 올 때까지 노예의 운명을 측은히 여기고 그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³¹⁾

결국 그레구아르는 한편으로는 노예제에 대한 근본적 비판과 노예해방,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권리를 획득한 몰라토에 의한 노예의 통제를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이 상호 모순된 두 주장을 노예 소유주 계급의 후원을 통한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노예해방이라는 전망을 통해 결합시켰다. 이러한 그레구아르의 견해는 노예 해방을 먼 미래로 연기하고 노예무역 폐지를 우선의 과제로 삼았던 ‘흑인의 벗’ 협회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시기 ‘흑인의 벗’ 협회는 많은 수의 자유 유색인이 노예 소유자라는 이유로 자유 유색인 운동에 대한 지지를 주저했다. 협회의 서기 브리소가 자신의 신문 『프랑스 애국파(Le Patriote français)』에서 자유 유색인 문제를 둘러싼 제한의 회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보도했지만 협회의 누구도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브리소의 중재로 드졸리와 ‘아메리카 식민지인’ 협회 회원들이 ‘흑인의 벗’ 협회에 참석한 것은 전자가 진정서를 제출하고 한 달이 더 지난 11월 24일에 가서였고, 그레구아르는 12월 4일 ‘흑인의 벗’ 협회의 명예회원이 되었다.³²⁾ 이후에도 그레구아르는 ‘흑인의 벗’ 협회에서 거의 활동하지 않았다. ‘흑인의 벗’ 협회 회원이자 미래의 지롱드파 장소네, 클라비에르, 브리소가 자유 유색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한 것은 식민지 상황이

31) *Ibid.*, pp. 35-38.

32) M. Dorigny, B. Gainot, *La Société des Amis des Noirs, 1788-1799. Contribution à l'histoire de l'abolition de l'esclavage*(Unesco, 1998), pp. 244-249.

더 폭력화한 1791년에 가서였다. 그들은 이때 피부색의 위계가 아닌 재산의 위계에 기반한 사회의 수립이라는 시각에서 자유 유색인과 백인의 평등을 강력히 옹호했다. 그들은 특히 몰라토를 족쇄에서 풀어줌으로써 프랑스의 교역과 생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³³⁾

노예제 문제에서 ‘흑인의 벗’ 협회는 노예 없는 식민지가 도덕적으로 떳떳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고 식민지 노예노동을 자유 임노동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노예제는 그때까지 존속할 것이었다. 그러므로 ‘흑인의 벗’ 협회가 노예제 폐지를 주장했다고 해서 곧 식민지 건설에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협회는 곧 광활한 대륙 아프리카로 눈을 돌려 그곳에 더 수지맞는 식민지를 건설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될 것이었다. 성직자였던 그레구아르는 ‘흑인의 벗’ 협회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시각에서 식민지와 노예제 문제에 접근했고, 그 점에서 협회와 온전히 보조를 함께하기 어려웠다. 한편으로 그레구아르는 본국의 경제적 이익을 내세워 노예무역과 노예제 존속을 주장하는 것은 이기심을 조국의 이익으로 은폐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거기서 한층 더 나아가 그는 식민지 경제를 “인위적 필요”에 기반한 지배의 경제라고 비판했다. 즉 식민지 경제는 생필품이 아닌 것을 얻기 위해 아프리카인을 희생시키는 이기심의 술책이었다. 그에 따르면 정치와 경제는 정의와 도덕의 원리에 종속되어야 하고, 국가의 도덕은 개인의 도덕과 동일해야 했다. 국가의 안정과 행복은 오직 정치적 원리와 정의의 원리가 일치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³⁴⁾

식민지, 노예제, 자유 유색인의 권리에 대한 그레구아르의 견해는 혁명적 이상주의와 종교적 도덕주의, 그리고 현실적 판단이 뒤섞인 혼란스럽고 때로는 모순적인 것이었다. 자유 유색인의 권리에 대한 그레구아르의 옹호는 당장에는 노예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먼 미래에 해방하고자 하는 보수적인 것이었지만 노예제 폐지를 위한 사전 운동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었고 따라

33) 몰라토 문제와 노예제에 대한 ‘흑인의 벗’ 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M. Dorigny, “La société des Amis des Noirs. Les Girondins et la question coloniale”, *Esclavage, colonisation, libérations nationales*(L'Harmattan, 1990), pp. 69-78; “Mirabeau et la Société des Amis des Noirs: quelles voies pour l'abolition de l'esclavage?” *Les abolitions de l'esclavage de L. F. Sonthonax à V. Schoelcher, 1793 1794 1848*(P. U. de Vincennes/UNESCO, 1995).

34) *Mémoire en faveur des gens de couleur ou sang-mêlés*, pp. 36-37.

서 의회에서 식민지 문제에 대한 우려를 더욱 자극했다. 그러므로 그레구아르의 활동은 오히려 자유 유색인의 정치적 권리 획득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자유 유색인들은 대표권을 얻기 위해 위임장 심사위원회에 속한 그레구아르에게 큰 기대를 걸면서도 지속적으로 자유 유색인의 대의와 노예의 대의를 구분하고자 했다. 그러나 동시에 의회 내외에서 지속적인 거부에 직면하여 절망감을 느낀 자유 유색인들은 노예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장기적인 노예 해방이라는 전망을 자신들의 담론 속에 받아들였다.

2. 대표권 획득을 위한 투쟁과 좌절

10월 22일 ‘아메리카 식민지인’ 협회의 진정서는 제헌의회에서 비교적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드졸리가 청원서를 낭독한 후 의장 프레토(Fréteau)는 “의회에 그 권리를 요구하는 어떤 시민의 수고도 무위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출생과 편견에 의한 차별은 의회 법령의 인류애에 의해 일소될 것”이라고 답했다.³⁵⁾ 그러나 10월 22일은 제헌의회가 로베스피에르와 페시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능동시민과 수동시민을 구분한 날이었다. 진정서 내용은 현안에 밀려 그날 논의되지 못했고, 이후로도 전혀 본회의 의제로 오르지 못했다. 의회 밖에서는 온건한 애국파 신문 일부가 진정서를 언급했지만, 적극적인 주장이나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하지는 않았다.³⁶⁾

35) *Le Patriote français, Journal libre, impartial et national*, par une Société de Citoyens, & dirigé par J. p. Brissot de Warville, N° LXXVII, Du Vendredi 23 Octobre 1789. 유색인 대표들은 국왕의 동생 프로방스 백작에게 소개되었고 백작은 보호를 약속했다. 또한 백작의 배려로 10월 29일 국왕을 알현하고 진정서와 청원서를 바쳤다. Extrait du procès-verbal de l'Assemblée générale des citoyens libres de couleur des Isles & Colonies françaises, constituée sous le titre de Colons Américains, 31 octobre 1789, 19 p, AN, AD XVIIIc 118, n° 6.

36) 『파리신문(*Journal de Paris*)』에는 제헌의회 의원 Garat의 언급이 실렸다. “그것(자유 유색인의 권리)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 문제는 오래 전에 이성과 정의에 의해 결정이 났으므로 이제는 법에 의해 결정이 날 것이다.” 애국파 신문 『파리의 혁명(*Révolution de Paris*)』에 따르면 “백인 농장주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자유롭고 세금을 납부한다. 그들 사이에는 피부색의 차이 외에는 어떤 차이도 없으며 굴욕적인 차별은 그들을 그들의 고향에서 이방인으로 만들고 그 차별은 강자의 법에 따른 것일 뿐이다.” Y. Bénot, *La Révolution française et la fin des colonies*(Paris: La Découverte, 1987), pp. 65-66에서 재인용.

게다가 자유 유색인들의 진정서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자유 흑인들이 별도의 대표를 요구하는 청원서³⁷⁾를 발표했다. 필자를 알 수 없는 이 글은 곧장 흑인은 순혈인 반면 몰라토는 흑과 백의 혼혈이므로 타락한 종이라고 주장했다. 이 글은 흑인을 순금에, 몰라토를 합금에 비유했다. 이 글에서 자유 흑인들은 몰라토가 의회에서 대표를 갖게 된다면 자신들도 대표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몰라토가 22일의 청원서에서 배은망덕하게도 의도적으로 자유 흑인을 누락했다고 비난했다. 자유 유색인들은 자유 흑인들의 청원서가 마시악 클럽의 술책이며 여론을 혼란케 하고 자유 유색인들의 요구를 조롱하고 그들에 대한 공감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의심했다. 마시악 클럽은 11월 내내 의회에 참석한 자유 유색인들의 대표성을 부정하고 그들의 정치적 권리가 의회 안에서 논의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³⁸⁾

진정서를 제출하고 한 달이 지나도록 의회에서 아무런 반응도 얻지 못한 자유 유색인들은 11월 23일 제헌의회 위임장 심사위원회에 보내는 편지를 발표했다.³⁹⁾ 이 편지는 마시악 클럽과 백인 식민지 대표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자 자유 흑인들의 청원서에 대한 답신이기도 했다.

먼저 유색인 시민들은 식민지에는 신분차별이 없으며 이미 식민지는 의회에 대표를 가지고 있다는 백인 농장주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신분의 차별은 존재하지 않지만, 인류의 수치인 계급(*classe*)의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우선 그들(백인 농장주들)은 수많은 개인을 노예제라는 수치스러운 짐 아래 짓눌러 신음하도록 강요하고 그들을 완전히 격리하여 동물과도 같은 상태로 떨어뜨리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그들은 해방된 유색인 시민과

37) Observations sur un pamphlet, ayant pour titre: Réclamation des nègres libres, colons américains, 7 p, FRRC 11.2/54.

38) 마시악 클럽은 끊임없이 ‘아메리카 식민지인’ 협회의 ‘대표성 부재’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Moreau de Saint-Méry, Médéric-Louis-Elie, *Considérations présentées aux vrais amis du repos et du bonheur de la France, à l'occasion des nouveaux mouvemens de quelques soi-disant Amis-des-Noirs*, Paris, 1791, pp. 8-9, FRRC 11.2/62; J. Raimond, *Réponse aux considérations de M. Moreau, dit Saint-Méry, député à l'Assemblée Nationale, sur les colonies*, Paris, 12 mai 1791, pp. 14-15, FRRC 11.2/63.

39) Lettre de citoyens de couleur, des Isles et colonies françaises, à MM. les membres du Comité de vérification de l'Assemblée Nationale du 23 Novembre 1789, AN, AD XIIIc 118, n° 7.

몇 대이든 상관없이 그의 후손을 백인 농장주들로부터 완전히 구별한다. 이 백인 농장주들은 노예제를 도입하여 존속시키고 영속화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오직 그들만이 입법부의 주목을 받을 자격을 지녔다. 또한 여러분이 보았듯이 그들은 오직 백인만을 위해 행동하고 백인만을 위해 참석한다.⁴⁰⁾

두 번째로 유색인 시민들은 유색인 대표가 정당하게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식민지 대표로 인정할 수 없고 유색인 대표 문제는 식민지 의회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백인 식민지 대표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식민지에는 삼부회 구성을 위한 소집장이 전달되지 않았고 일차회의의 소집조차 엄격히 금지되었으며 유색인 시민의 경우에는 여전히 그러하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생도맹그 대표는 파리에서 선출되었다. 과들루프 대표도 파리에서 선출되었다. 마르티니크 대표도 파리에서 선출되었다. 유색인 시민 대표는 왜 파리에서 선출될 수 없는가?”⁴¹⁾

이 편지는 또한 자유 흑인들을 염두에 두고 노예제와 그 책임자인 백인 농장주를 격렬히 비난했다. 노예의 적은 몰라토가 아니라 백인 농장주이다. 그들은 노예제를 도입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영속화하기 위해 자유 유색인을 차별하고 비권리 상태에 가둬 두었다. 그러므로 이 편지에서는 앞서의 다른 텍스트들에서와는 달리 노예제 존속을 위한 백인 식민지 대표와의 동맹이 더 이상 제시되지 않는다. 오히려 유색인 시민들은 백인 대표들을 명백히 압제자로 표현하고 앞으로 식민지 문제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를 드러낸다.

압제자들이여... 유색인 시민의 자연적 적인 백인 대표들이 여전히 그들(유색인 시민)을 대표하고, 그들의 이익을 규정하고 옹호할 책임을 맡는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수적으로 가장 많고 가장 불행하며 그러나 식민지에 가장 유용한 계급의 지위, 권리, 특권을 결정할 헌법의 토대를 결정하는 수고를 우리가 그들에게 일임해서는 안 될 것이다.⁴²⁾

자유 유색인들은 며칠 후인 11월 27일 발표한 글에서 백인 농장주 대표들에게 더욱 공세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그들에 따르면 시효에 의해 소멸될 수 없는 자연권, 실정법의 원리, 식민지의 옛 법, 국민의회의 법령, 정의, 이성 그리고 인류애가 유색인 시민의 권리를 지지한다. 오직 백인 식민지 대표만

40) *Ibid.*, p. 6.

41) *Ibid.*, p. 19.

42) *Ibid.*, p. 10.

이 그 권리를 거부하며 유색인 시민이 재산 소유자인지를 묻고 그의 자유를 의심하고 그 자유의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한다.⁴³⁾ “그러나 재산 소유자인지 묻는 것은 부적절하고 증거는 소용없다. 왜냐하면 현재의 법률은 재산 소유자가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대표를 갖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색인 시민은 백인 농장주 대표에게 같은 질문을 되돌려준다. 즉 “그들이 정말로 모두 백인인지, 그리고 그 필연적 결과로 그들이 모두 자유인인지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자유는 호홉하는 모든 존재에게 고유한 자연권이므로... 노예제가 도입된 식민지에서조차 어떤 사람에게 그가 노예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에게 그것을 입증해야 한다.”⁴⁴⁾ 결국 유색인 시민들은 백인 농장주들 자신의 논리를 이용해 노예제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으로까지 나아간다. 이러한 노예제에 대한 비판은 양보와 변화를 전혀 용인하지 않으려는 백인 농장주들의 완강한 태도와 자유 흑인들의 공세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여 인권선언의 논리를 식민지의 인종적 계서체에 대입한 결과였다.

그러나 자유 유색인들은 백인 농장주에 대한 공세와 노예제에 대한 비판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했다. 그들은 제헌의회를 안심시켜야 했다. 그에 따라 그들은 그들이 얻게 될 대표권이 식민지의 상태를 결코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고 어떤 반란, 어떤 운동, 어떤 종류의 분열도 낳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다.⁴⁵⁾

12월 3일 위임장 심사위원회가 자유 유색인 대표 문제를 제헌의회에 상정하고자 했을 때 상황은 자유 유색인에게 매우 불리했다. 11월 25일 마르티니크의 노예반란 소식이 전해졌고, 12월 1일 식민지에 지원군을 파견하라고 요청하는 보르도 상인들의 진정서가 의회에 제출되었다. 3일 의회의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 노예제와 노예무역, 혁명 전 식민지 관련법들의 존속을 요구하는 보르도 거주 농장주 77인의 탄원서가 낭독되었다. 이날 식민지위원회 구성안이 본회의 의사일정에 올랐고, 자유 유색인 대표 문제를 먼저 논의할 것을 요구한 그레구아르는 식민지 대표들을 포함한 의원들의 야유와 고함 속에 연단을 내려와야 했다.⁴⁶⁾

43) *Dernières observations des citoyens de couleur des isles et colonies françaises, du 27 Novembre 1789*, p. 13, AN, AD XVIIIc 118, n° 8.

44) *Ibid.*, p. 14.

45) *Ibid.*, pp. 18-19.

46) *Le Patriote français*, N° CXIX, Du Samedi 5 Décembre 1789. 자유 유색인이 대표

결국 자유 유색인 대표 문제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자유 유색인들은 이후로도 기회를 갖지 못했다. 위임장 심사위원회는 1790년 1월 말까지도 제헌의회에서 자유 유색인 대표 문제를 보고하지 못했다.⁴⁷⁾ 드졸리와 ‘아메리카 식민지인’ 협회는 돌파구를 찾아 파리 코뮌으로도 관심을 돌렸다. 1790년 2월 1일 유색인 시민 대표들은 파리 코뮌 대표자 총회에 참석하여 제헌의회에서 유색인의 권리를 옹호해 달라고 요청했다.⁴⁸⁾ 이날 자유 유색인들은 자신들이 재산소유자이며 납세자이므로 코뮌의 중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자부하고 자신들의 대의와 노예의 대의, 노예제의 문제, 노예무역의 폐지를 구분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다. 그들은 자신들을 “훨씬 더 불행한 사람들, 즉 이익과 탐욕이 노예로 전락시킨 사람들, 농장주들이 소유물처럼 다루는 사람들과 구분”할 것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코뮌 성원 중 일부는 자유 유색인 문제를 제쳐놓고 노예무역과 노예제를 옹호함으로써 자유 유색인들의 요청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파리 코뮌은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두 차례나 연기했다가 결국 결정을 내리기를 거부했다. 결국 제헌의회는 자유 유색인의 대표 문제를 한 번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채 3월 8일과 28일 자유 유색인의 요구와 노예제·노예무역에 대한 비판을 완전히 배제하는 법령과 명령서를 통과시켰다.

권을 얻기 전에 식민지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위원회는 식민지 농장주와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인물들로만 구성될 수 있었다. 그레구아르가 우려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결국 1790년 3월 4일 바로 그런 방식으로 식민지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이 위원회가 3월 8일 법안을 제출할 것이었다.

47) 위원회의 보고자 그레레 드보르가르(Grelet de Beauregard)는 두 차례 의회에서 보고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농장주들과 그 지지자들은 효과적으로 소란을 피워 발언을 막았고 드보르가르는 결국 보고를 포기했다. J. Raimond, *Véritable origine des troubles de S.-Domingue*, p. 19.

48) *Adresse des citoyens de couleur des Isles & Colonies françaises; à l'Assemblée générale des représentants de la Commune de Paris*, Prononcée, le premier février 1790, par M. Joly, avocat aux Conseils, l'un des représentants de la Commune, en présentant une députation des Citoyens de Couleur, 15 p., AN, AD XVIIIc 118, n° 12.

IV. 맺음말

1790년 3월 8일 법령은 자유롭게 선출된 식민지의회가 식민지의 헌법안을 수립하여 국민의회에 제출하게 했다. 이 법령은 국민의회는 프랑스와 식민지 사이의 상업에서 어떤 혁신도 바라지 않으며 이에 대항하여 봉기를 선동하는 자는 국민에 대한 범죄자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미 자유 유색인을 배제하고 구성된 식민지의회를 인정하고 노예무역의 지속을 선포한 것이었다. 이어 3월 28일 명령서는 식민지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일정한 세금을 납부하고 선거구에 2년간 거주한 25세 이상의 “모든 사람(toute personne)”이 투표권을 갖는다고 규정했다. 그레구아르는 이 규정에 자유 유색인을 명시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제헌의회는 논의를 거부했고, 이후 식민지의회는 자유 유색인을 “모든 사람”에서 배제했다. 제헌의회는 식민지 헌법과 누가 “사람”인가에 관한 결정권을 식민지의회로 넘겨주고 식민지의 노예제와 인종차별 체제를 프랑스의 사회경제적 틀 안에 합법적으로 결합시켰다.

삼부회가 소집되었을 때 자유 유색인들은 자유로운 재산 소유자이자 유럽인의 후손임을 내세워 동등한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요구했다. 그들은 흑인은 곧 노예임을 암묵적으로 인정했고 자신들의 요구가 식민지의 인종차별 체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은 제헌의회에 호소하기에 앞서 내각의 지원이나 백인 농장주들의 협조를 통해 식민지 체제를 수호하는 동맹자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고자 했다. 이러한 시도에 실패한 후 제헌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독자적인 대표를 요청하면서 자유 유색인들은 혼혈인의 권리라는 협소한 틀에서 벗어나 자유 유색인 전체의 동등한 권리와 노예제에 대한 근본적 비판으로 시야를 확장할 수 있었다. 그것은 자유 유색인들이 식민지 대표와 마시악 클럽에 맞서 제헌의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보편적 권리의 담론을 수용함으로써 가능했다. 그러나 프랑스의 혁명가들은 식민지를 둘러싼 이해관계에 얽매어 스스로의 혁명적 이상을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자신이 선포한 원리와 담론으로부터 후퇴하여 자유 유색인 문제에 대한 결정과 책임을 식민지로 떠넘겼다.

이러한 상황은 이후 몇 년 간 강도를 높여가며 되풀이될 것이었다. 1790년 3월 법령이 통과된 후, ‘아메리카 식민지인’ 협회 회원이자 생도맹그 북부의 부유한 농장주였던 자유 유색인 뱅상 오제(Vincent Ogé)는 생도맹그로 돌아

가 무장반란을 일으켰다. 그의 처참한 최후는 프랑스의 여론을 움직였고 1791년 5월 15일 제헌의회는 자유 유색인 중 자유로운 부모에게서 태어난 이들에게 정치적 권리를 부여했다. 그러나 제헌의회는 다시 식민지 백인과 연합하여 식민지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해 1791년 9월 24일 이 법령을 취소했다. 그리고는 노예반란 소식이 전해지고 자유 유색인과 왕당파의 동맹이 가시화되자 입법의회는 1792년 3월 24일 모든 자유 유색인에게 완전한 정치적 권리를 부여했다. 이 법이 식민지에 공포된 1792년 5월이면 노예 반란이 일어난 생도맹그 북부를 제외한 서부와 남부에서 백인과 자유 유색인 사이에 극한의 폭력적 대결이 되풀이된 끝에 자유 유색인이 실질적 승리를 거둔 상태였다.

백인 농장주와 하층 백인 대부분이 인종적 계서제에 집착했던 생도맹그에서 프랑스 의회가 선포한 추상적 원칙과 모호한 법률은 극단적인 폭력적 대결을 통해 현실적 의미를 획득할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의 혁명가들은 자신들의 의도와 통제를 벗어난 식민지 혁명을 사후적으로 허겁지겁 재가하면서 현실적 이해관계에 얽매인 자신들의 단견과 우유부단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1794년 노예해방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때까지 계속된 이러한 상황은 이미 혁명 초기 자유 유색인 문제에서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서울여자대학교 사학과)

〈투고일자: 2011. 7. 14 심사일자: 2011. 7. 28 게재확정일자: 2011. 8. 2〉

주제어: 자유 유색인(free coloureds), 몰라토(mulattos), 줄리앵 레몽(Julien Raimond) '아메리카 식민지인' 협회(Société des 'colons américains'), 그레구아르 신부(abbé Grégoire), 3월 8일 법령(Decree of March 8)

〈Résumé〉

La Révolution française et les droits politiques des mulâtres: De la convocation des États-généraux jusqu'au décret du 8 mars 1790

Heeyoung YANG

Cet article examine les combats des libres de couleur pour les droits politiques à partir de la convocation des États-généraux jusqu'au vote du décret du 8 mars 1790, premier décret compréhensif sur la question des colonies.

Les gens de couleur libres ont demandé les droits civils et politiques du citoyen, faisant valoir qu'ils étaient propriétaires libres et descendants des Européens. Ils n'ont pas pensé que leur revendication des droits politiques mit en danger le système racial en colonies, parce qu'ils n'ont pas réclamé l'abolition de l'esclavage. C'est pourquoi ils s'efforçaient d'obtenir les appuis des ministres français et des planteurs blancs qu'ils considéraient des alliés pour défendre le système colonial. Après que cette tentative a échoué, les libres de couleur ont présenté leur cahier de doléances et demandé la représentation à la Constituante. Dans ce processus, ils se sont échappés de l'idée fixe de droits de sang-mêlé et avancés vers les droits égaux de tous les gens de couleurs libres, y compris les noirs, et vers la critique essentielle sur l'esclavage par l'acceptation des discours des droits universels des hommes. Révolutionnaires français, prisonniers des intérêts réels autour des colonies, ne pouvaient pas maintenir leurs idéals révolutionnaires. Enfin, renonçant les principes qu'ils avaient prononcés, ils ont laissé aux colonies la décision et la responsabilité sur la question des libres de couleur .

A Saint-Domingue, c'est seulement par les affrontements violents que l'on pouvait donner le sens réel aux principes abstraits et droits vagues, puisque la plupart des planteurs et des petits blancs s'attachaient à la hiérarchie raciale. Révolutionnaires français ne pouvaient que se hâter de ratifier la révolution coloniale après coup et reconnaître leur erreur de jugement et leur indécision liée aux intérêts réels. Ces circonstances, qui continuaient jusqu'à l'abolition officielle de l'esclavage, devaient être déjà prévisible à la lumière du problème des libres de couleur au début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Summary〉

The French Revolution and the Political Rights of Mulattos: from the Convocation of the Estates-General to the Decree of March 8, 1790

Heeyoung YANG

This article examines the free coloureds' struggles for the political rights from the convocation of the Estates-General to the vote of the decree of March 8, 1790, the first comprehensive decree on the colonial questions.

The free coloureds demanded the civil and political rights of the citizen, insisting that they were free property owners and descendants of Europeans. They didn't think that their demand for the political rights would endanger the racial system in the colonies, because they didn't claim the abolition of slavery. Therefore they tried to obtain the support of the french ministers and the white plantation owners who they considered their allies defending the colonial system. After this attempt turned out a failure, the free coloureds submitted their own *cahier de doléances* and demanded their representation in the Constitutional Assembly. In this process, they freed themselves from the fixed idea of the rights of mixed-blood and advanced toward the equal rights of all free coloureds including blacks, and forward the essential criticism on the slavery by acception of the discourse of the universal rights of men. French Revolutionaries, prisoners of the interests around the colonies, could not maintain their revolutionary ideals. Finally, abandoning the principles that they had announced, they shifted onto the colonies the decision and the responsibility on the question of racial equality.

In Saint-Domingue, since most of the plantation owners and small whites obsessed with the racial hierarchy, it was only by the violent confrontations that the abstract principles and ambiguous rights could obtain the practical meaning. French Revolutionaries had to sanction the colonial revolution with haste too late and acknowledge their error of judgement and indecision bound by practical interests. These circumstances, which continued till the official abolition of slavery, were already foreseeable in the light of the question of free coloureds at the beginning of the French Revolution.